

Strategy Idea

본 자료의 원본은 2025년 5월 16일 발간된
[Strategy Indepth – G2 AI Agent] 임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Strategy Indepth 시리즈 1-1 (해설판) [미국] G2 AI Agent

- ✓ AI Agent의 확장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MCP(Model Context Protocol)의 등장
- ✓ 글로벌 AI 리더들의 MCP 채택, AI 네트워크 표준화 과정으로 이해. 표준화는 확산 가속 요인
- ✓ 하반기 AI 소프트웨어 기업 관심, 'Rule of 40' 기준의 종목 선별

AI 산업의 위치 판단

Agentic AI 시대의 초입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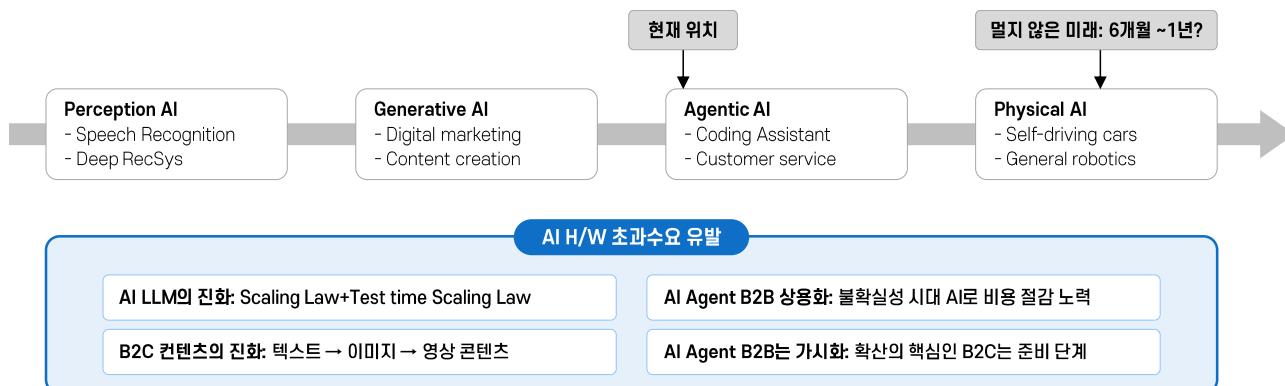
AI Agent: 인간의 비물리적 행동을 대신해주는 AI

우리는 AI 산업이 Agentic AI 시대 초입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다. Agentic AI를 인간의 비물리적 행동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정의해보면, Generative AI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 콘텐츠 생성에 그치는 Generative AI의 역할을 넘어 여러 데이터셋과 어플리케이션과 동시에 상호작용해 지시한 목표를 대신해주는 개념이 AI 에이전트다.

AI B2B Agent는 수익화,
B2C Agent는 상용화 이전 단계

Agentic AI 시대 초입이라고 보는 이유는 B2B에서 이미 수익화가 진행되는 기업이 눈에 띠기 시작했고, B2C에서 아직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기에 AI 에이전트의 역할이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B2C 퀄러 앱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3년 이후 AI 기술 진보 속도를 놓고 본다면, B2C에서 AI 에이전트의 상용화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림1 AI 산업의 현위치 판단: Agentic AI 시대 초입



하반기 G2 투자에 AI Agent 주목 필요

실적발표에서 Agentic AI, AI Agent 언급하는 기업 수 증가

이번 자료에서 Agentic AI에 조명하는 이유는, 이미 기술 선도 기업들이 Agentic AI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과 올해 S&P500 기업 중 Agentic AI(혹은 AI Agent)를 언급한 기업들의 수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4Q24 실적발표에서 S&P500 기업 중 해당 단어를 언급한 기업의 수는 34개로, 작년 10월~12월 진행된 3Q24 실적발표에서 AI Agent를 언급한 기업의 수가 12개에 그쳤던 것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아직 실적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7개 기업이 AI Agent를 언급했다.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AI Agent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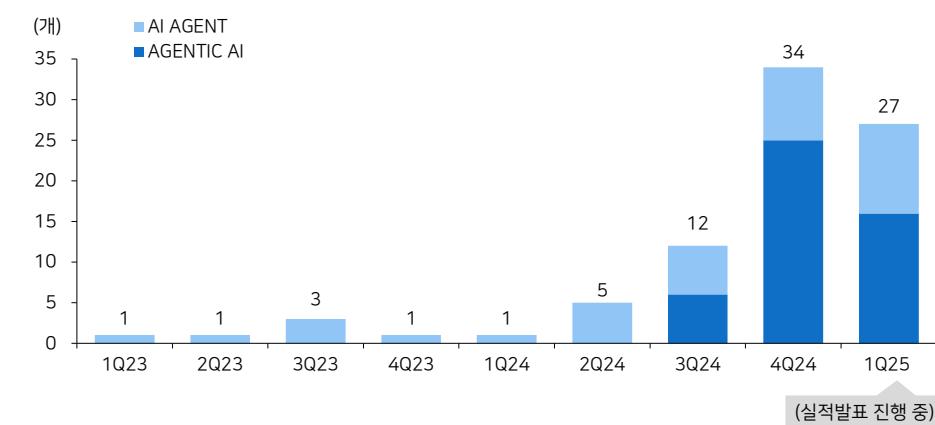
단어를 언급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 Agentic AI 시대에 기회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기회의 중심은 단연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대표 기업인 팔란티어를 포함해, 서비스나우와 같은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고객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우려가 오히려 고객 기업들의 AI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에서도 감지된다. AI 서버 인프라 기업들은 고객 기업(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Agent에서 기회를 모색하며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Capex 투자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상반기를 지배했지만,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을 막론하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배경이다.

미국, 중국 공히 올해 하반기 Agentic AI 확산 가속화 전망

우리는 하반기 글로벌 투자에서 Agentic AI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AI를 선도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AI 응용이 더 빠른 중국에서도 AI 에이전트 확산 초입의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듯 하다. 이번 자료에서는 G2에서 하반기 AI 에이전트 확산이 가속화될 환경으로 보는 이유와, 그 가운데 어떤 기회를 봄지를 정리했다.

그림2 S&P500 기업 중 AI Agent, Agentic AI를 언급한 기업 개수(5/11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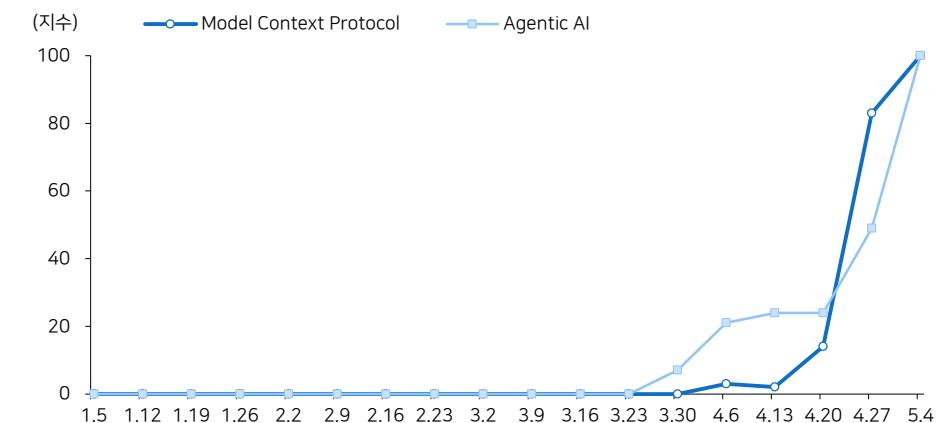
Agentic AI와 함께 관심이 커지는 MCP

Agentic AI와 함께 관심이 커지는 MCP라는 개념

Agentic AI의 확산을 기대하는 이유는 'MCP'의 등장과 표준 기술 채택 가능성 때문이다. MCP는 'Model Context Protocol'의 약자로, AI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 하나다. 이 기술이 최근에 Agentic AI와 함께 주목받는 이유는 AI 네트워크 효율화로 여러 단계의 연산이 필요한 Agentic AI 확산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Agentic AI' 주제(키워드 AI Agent, Agentic AI 등)에 대한 검색 빈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함께 검색 빈도가 높아진 주제가 'Model Context Protocol'이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AI 응용과 확산에 가장 진심인 국가 중국이다.

그림3 구글 트렌드: 전세계 "Model Context Protocol"과 "Agentic AI" 주제에 대한 검색 빈도



자료: Google Trend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구글 트렌드: 'Model Context Protocol' 주제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 중국이 가장 높음



자료: Google Trend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gentic AI로 진화하며 네트워크 복잡도/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AI 모델은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서 분석 및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RAG 기반의 AI 서비스의 경우에는 검색 시 여러 데이터 소스 (AWS, Google Drive, 온프레미스)를 참조하기도 한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 클라우드간 실시간 데이터 이동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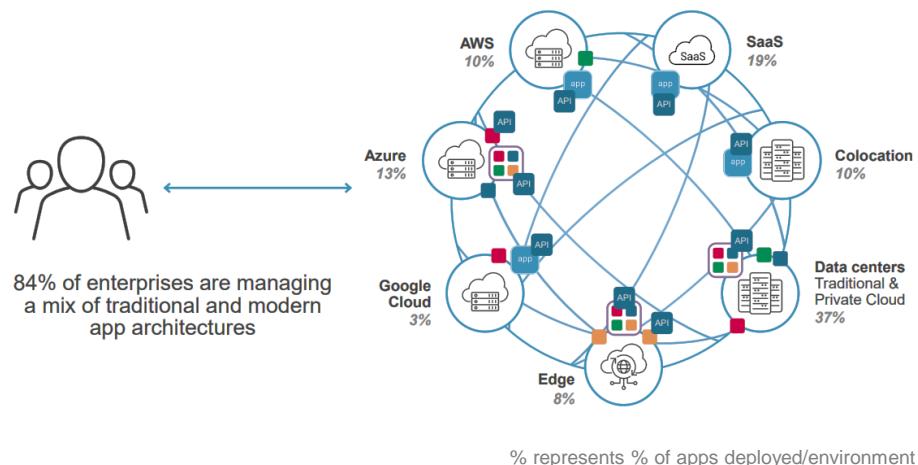
데이터 소스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짐

AI 에이전트,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생성형 AI
보다 훨씬 더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 소스가 추가될 때마다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4개의 데이터 소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업은 단일 환경만 사용하는 기업 대비 관리/보안 트래픽이 10배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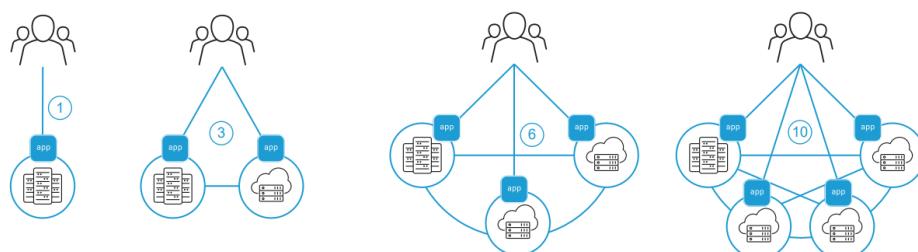
AI 모델을 단일 호출, 즉 한 번만 데이터를 요청하는 Generative AI와 달리 Agentic AI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단계로 AI 모델을 반복 호출하고 여러 도구를 조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Generative AI에서 Agentic AI 시대로 진입할수록 네트워크 차원의 복잡도와 컴퓨팅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림5 앱과 데이터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축 및 분산, API를 통해 제공



자료: F5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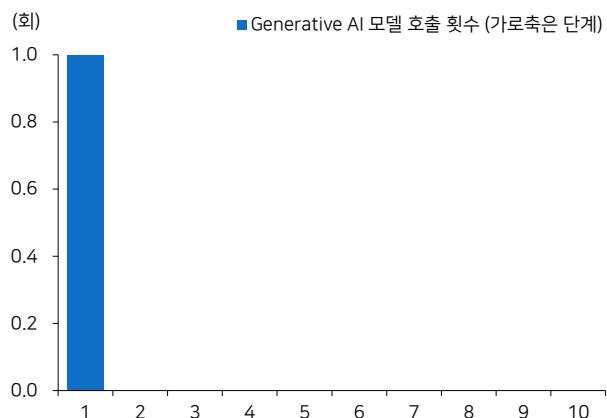
그림6 새로운 데이터 소스 환경 추가될 때마다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Enterprises deploying apps across 4 environments have ~10x more application traffic routes to manage and secure than those with just 1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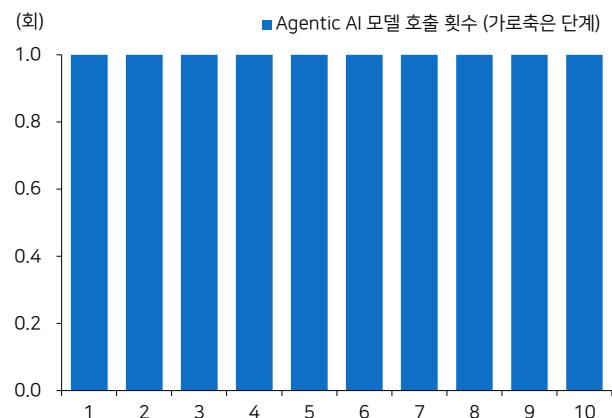
자료: F5 Networks

그림7 Generative AI 모델 호출 횟수: 단일 호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Agentic AI 모델 호출 횟수: 단계별 모델 호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Gen AI vs Agentic AI 비교 예:
영화보기 관련 두 AI에게 요청을 한다면

목표: 주말에 영화보기

Generative AI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프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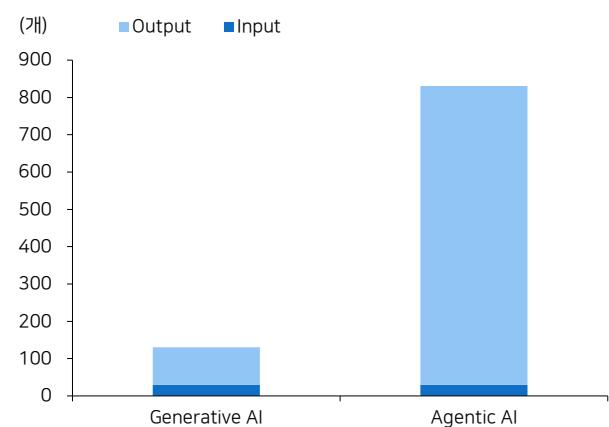
주말에 상영하는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줘.
우리집 근처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리스트업해줘.

Agentic AI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프롬포트

이번 주말에 상영하는 영화 중에 가장 예매율이 높은 영화를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관에서 예매해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두 요청에 대한 답을 주는데 필요한 토큰 수 추산



주: GenAI – Input 2문장 30토큰, Output 영화 5편 추천,
상영관 5곳 간단한 설명 포함 약 100토큰.

Agentic AI – Input 2문장 30토큰, 에이전트 단계

- 1) 상영작/예매율 검색, 2) 영화 선정, 3) 상영관 검색, 4) 예매 수행.
단계별 I/O 합계는 보수적으로 200토큰, 총 830토큰

자료: OpenAI, Reddi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MCP 등장 이전 AI 네트워크 환경

급증하는 AI 에이전트 모델과 도구, 데이터 소스

AI 산업 성장과 급증하는
AI 에이전트 모델, 도구,
데이터 소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LLM 기반의 챗봇, 에이전트, 전문 검색 도구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AI 서비스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문서 요약,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웹 문서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해 답변을 생성하는 툴, 기업 내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아 요약해 주는 툴, 또는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을 통합 검색해 주는 API 서비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산업 확장과 N×M 문제(N: AI 모델 개수, M: 도구, 데이터 소스의 개수)의 부각

네트워크가 연결해야 하는 노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짐

각종 AI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AI 모델↔도구' 혹은 'AI 모델↔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엮기 위해 '맞춤형 커넥터(connector)'를 각 플랫폼별로 일일이 구현해야 했다. 예를 들어 A사 모델이 B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A→B 전용 커넥터, A→C 클라우드 API 연결, A→D 내부 시스템 호출 커넥터 등이 연결들을 개별적으로 개발·테스트·배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N×M 문제'라고 한다. AI 모델이 N개이고 도구, 데이터 소스가 M개 일 때, N×M개의 연결이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AI 모델과 툴, 데이터 소스가 모두 산술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결 개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효율화할 필요성 제기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연결해야 할 노드가 급증하는 문제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연결 노드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는 게 불편했다. MCP 없이 기존 방식에서는 모든 연결마다 일일이 http 규격으로 헤더를 구성해야 했다. 이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불편해지는 이유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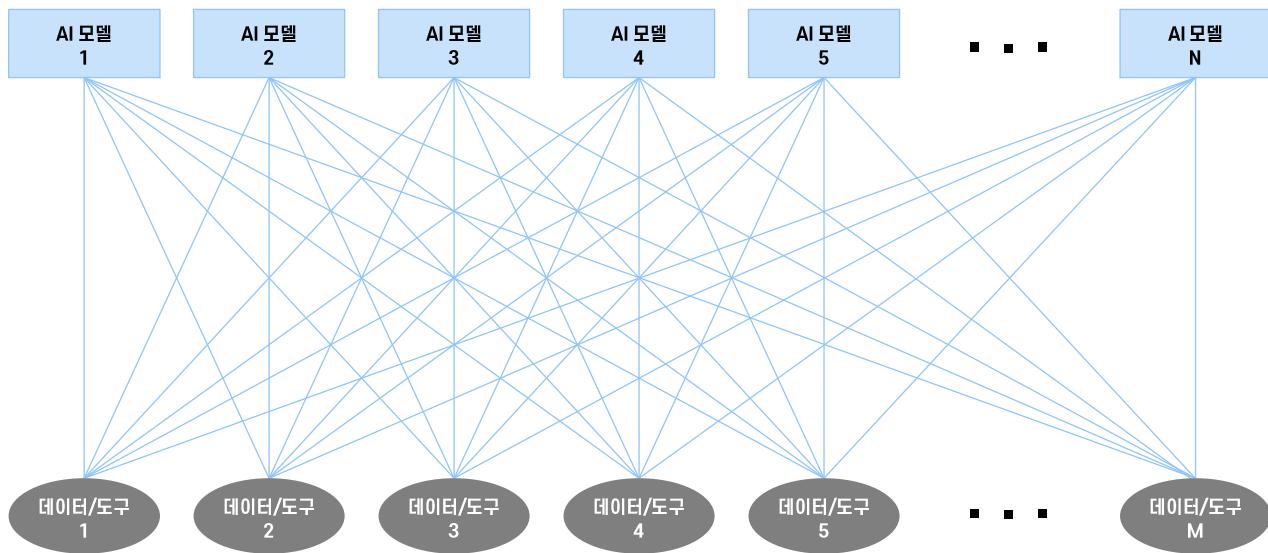
기하급수적 연결 급증 문제를
해결해줄 방식에 대한 요구

이런 상황에서 "AI 모델↔도구, 데이터 소스" 계층과 "AI 모델↔AI 모델" 계층을 아우르는 일관된 통신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단일 프로토콜만 지키면 어떤 모델이든 어떤 툴·데이터에든 연결할 수 있고, 내부 구현 방식이나 호출 메커니즘을 모두 캡슐화해 주는 공통 규격이 필요했다.

일부 새 프로토콜(A2A, ACP, ANP 등)이 AI 모델 간 협업 표준을 내세우며 경쟁했지만, AI 모델↔도구, 데이터 소스 통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AI 모델이 모든 도구·데이터 소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컨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MCP 같은 새로운 표준 프로토콜 제안이 등장한 것이다.

그림11 MCP 이전 AI 네트워크 양상: 산업의 확장으로 연결해야 할 노드가 급증하면 $N \times M$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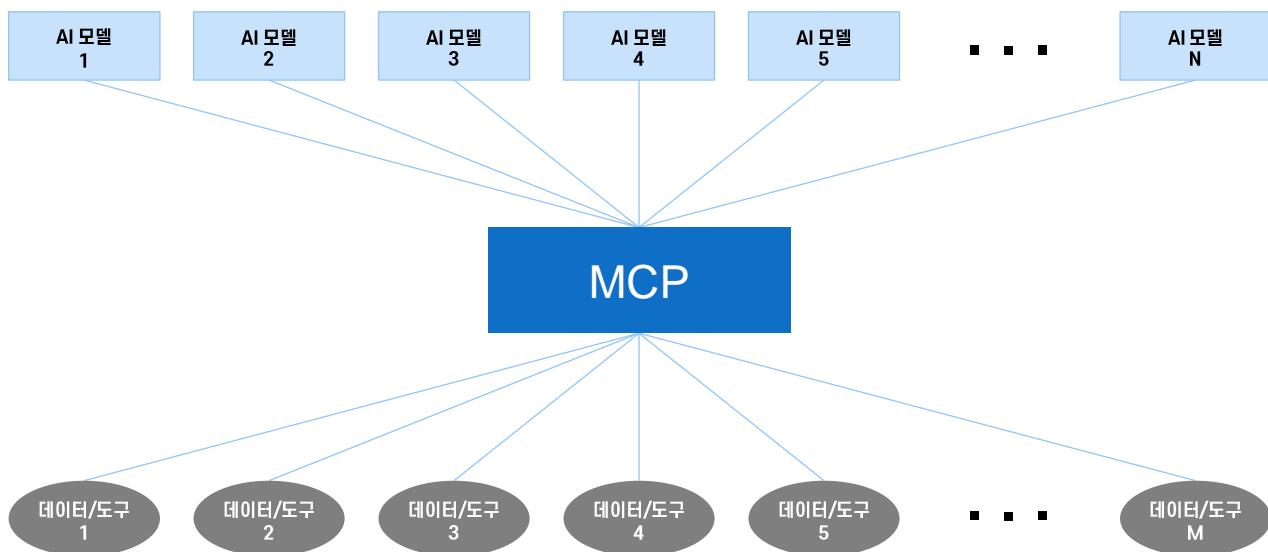
기존 AI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AI 모델이 개별 맞춤형 연결 방식을 사용. N개의 AI 모델과 M개의 데이터셋/도구 연결을 위해 $N \times M$ 개의 별도의 통합이 필요했음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MCP의 등장: $N \times M$ 개의 연결이 필요했던 상황을 $N+M$ 개의 통합만으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줌

MCP를 활용하면 모델과 데이터셋, 도구들이 하나의 통합만을 필요로 함. 각각의 노드가 MCP와 연결하기 위한 $N+M$ 개의 통합만 필요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모델과 도구, 데이터소스를
같은 규격으로 연결하게 해준
MCP의 등장

MCP의 등장과 의의

Model Context Protocol(MCP)의 의미

MCP는 Anthropic이 2024년 11월에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 MCP는 USB-C 포트가 노트북과 외부 기기를 통일된 방식으로 연결하듯, AI 모델과 도구/데이터를 '같은 규격'으로 맺어준다. MCP 이전 AI 모델은 각각의 데이터, 도구마다 개별 네트워크를 다른 규격으로 연결했다.

최초에 MCP 서버에 데이터 소스와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호출 할지 메타 데이터로 등록한다. AI 모델은 MCP 클라이언트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설치 및 설정해 서버와 연결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 소스 및 도구, AI 모델은 MCP 규격을 준수하게 된다. 이렇게 표준 포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툴을 한 번만 연결해두면 AI 모델이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꺼내 쓸 수 있다.

MCP의 가장 큰 효용은
 $N \times M$ 개의 연결을 $N+M$ 개로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

위의 특성이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데, 동시에 MCP의 가장 큰 효용은 ' $N \times M$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한번의 설정으로 일관된 규격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 AI 모델이 데이터 소스, 도구마다 개별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MCP를 적용하면 $N \times M$ 개의 통합의 수가 $N+M$ 개로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Generative AI보다 연산이
복잡한 Agentic AI에 더 큰 효용

MCP는 Generative AI보다 Agentic AI에서 더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Agentic AI는 다단계의 도구 호출과 동적 워크플로우를 요구한다. MCP는 이를 표준화하여 복잡도를 크게 낮춘다. 기존 Generative AI가 단일 요청, 단일 응답 구조인 반면, Agentic AI는 프롬포트가 입력되면 행동 계획, 도구 호출, 검증 단계를 반복하며 다수의 연속 호출을 필요로 한다.

MCP는 메타 데이터, 인증 정보, 입출력 스키마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 별도의 코드 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컨텍스트를 교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한 단순화는 Agentic AI에서 필연적인 다중 API 오케스트레이션 부담을 크게 줄인다. 이런 장점은 툴 간 협업이 핵심인 Agentic AI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단순 Generative A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상대적으로 MCP의 필요성이 낮다.

그림13 MCP 이전 AI 에이전트는 개별 API 여러 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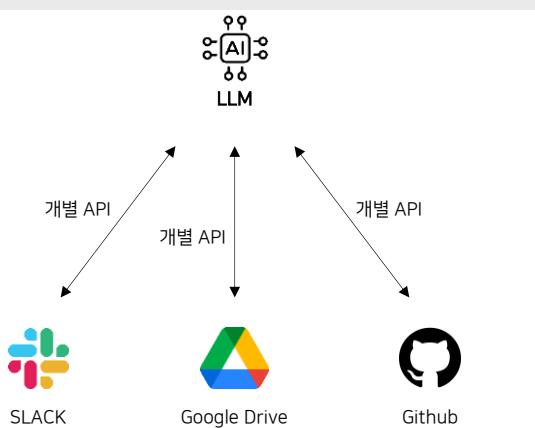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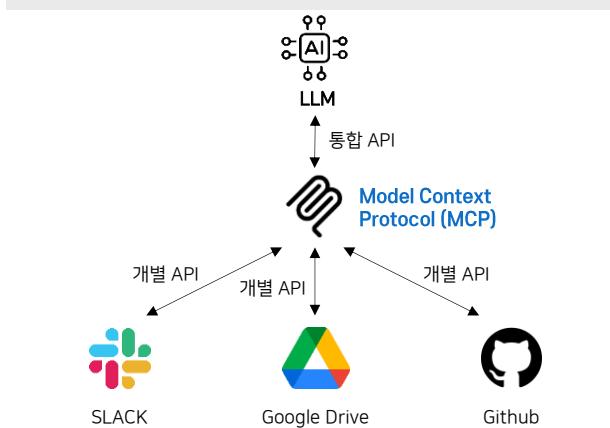


그림14 MCP로 AI 에이전트는 통합 API 하나만 연결



글로벌 AI 리더(빅테크)들의 MCP 채택 동향

MCP는 2024년 11월 공개 이후 6개월만에 미국의 Open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글로벌 AI 리더가 지원을 선언하며 빠르게 AI 네트워크 표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11월 출시 이후,
3월부터 미국 빅테크 채택 시작

가장 먼저 MCP 지원을 선언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다. 3월 19일 Copilot Studio 블로그를 통해 MCP 통합을 공식 발표했다. 사용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MCP 서버를 연결해 외부 지식 서버, API를 자동으로 에이전트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TechCrunch에 따르면 3월 26일 OpenAI는 ChatGPT 제품군에 MCP 지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MCP 채택으로 AI 에이전트에서 도구 호출이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통합되어, 개발자 경험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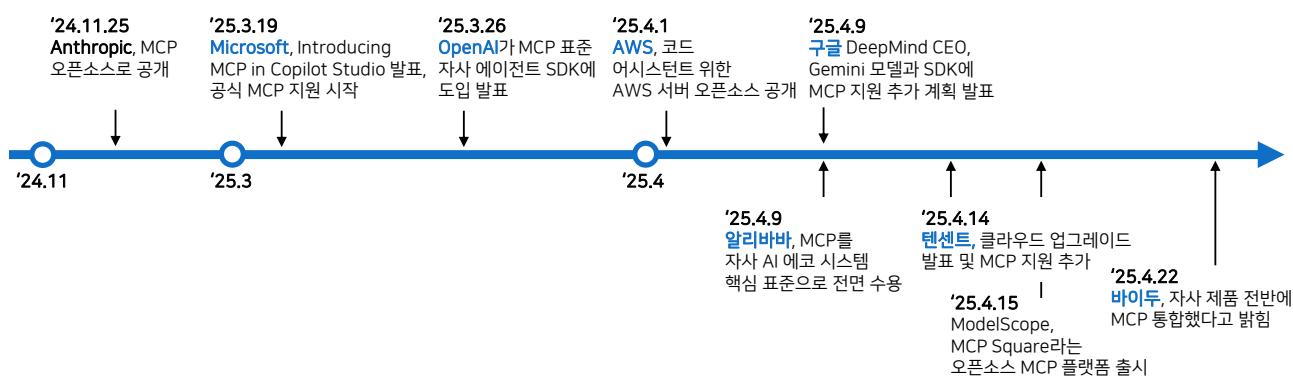
4월 1일에는 아마존이 AWS 블로그를 통해 "Introducing AWS MCP Servers for code assistants (part 1)"이라는 글로 AWS MCP 서버를 공개했다. 4월 9일에는 Google이 TechCrunch를 통해 Gemini 모델과 연동되는 MCP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Google DeepMind CEO는 "MCP는 Agentic AI 시대 핵심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빅테크들은 4월부터
MCP 채택하기 시작

4월부터 중국 플랫폼 기업들도 MCP 도입을 연이어 발표했다. 4월 9일 AIbase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MCP 완전 지원을 선언했으며, 4월 14일 텐센트도 MCP 지원을 시작했다. 같은 날 알리바바 Cloud Model Studio가 MCP 통합으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속도를 단축했다고 전했다.

4월 15일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ModelScope는 최대 규모의 중국 MCP 허브를 공개했다. 4월 22일에는 바이두도 자사 제품에 MCP 기능을 통합했다는 보도가, 25일에는 바이두가 "AI Open Program"라는 MCP 기반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림15 미국, 중국 AI 플랫폼 기업들의 MCP 도입 타임라인



자료: 언론 보도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CP 표준 채택 가능성의 시사점

빅테크의 행보,
MCP의 표준화 가능성 시사

2024년 11월 MCP가 처음 제안된 이후 약 6개월의 기술 검증 기간을 지나 글로벌 AI 리더들이 신속하게 MCP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MCP가 AI 모델과 도구/데이터 소스간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발 주자 혹은 생태계 하위에 있는 기업들은 리더가 쓰는 프로토콜을 따라갈 것이다.

네트워크 표준화 진행은
AI 기술 확산 가속화를 의미

네트워크 표준 확립은, AI 기술의 확산 가속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표준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후 기술 확산 속도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사례를 보면, 프로토콜의 표준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인터넷 네트워크
확장 사례

인터넷의 기원은 1957년 스피드니크 충격 이후 설립된 미국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다. ARPANET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 기술로 시작된 인터넷은, 1969년 첫 네 개의 노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표준인 TCP/IP는 1977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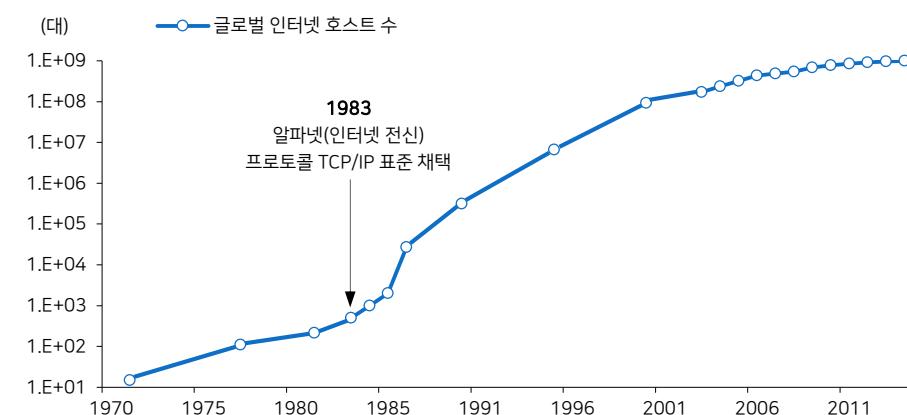
1983년 현재도 쓰는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TCP/IP) 채택

1983년 1월 인터넷 프로토콜이 기존 NCP(Network Control Protocol)에서 TCP/IP로 전환되며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1969년 첫 연결 이후 1983년까지 약 500대의 컴퓨터 연결에 그쳤던 인터넷은 그 이후 호스트 수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ISC에 따르면 1985년 글로벌 인터넷 호스트 수는 2,000대, 1990년에는 31만대로 급증했다. 1989년 WWW(World Wide Web)의 개발, 1990년 최초의 웹 브라우저 및 웹 서버 등장으로 인터넷 확산 속도는 그 이후 더 빨라졌다.

이후 인터넷 확산 속도 가속화

인터넷 프로토콜 채택 이후 확산 속도보다 지금 AI의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상업적인 목표로 앞다투어 MCP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CP의 일부 기술적 결함을 우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빅테크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이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16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 채택 이후 확산 가속화



자료: IS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Agentic AI 확산 가속 기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주목

MCP의 표준화는 AI 산업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고, 그 수혜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AI 하드웨어의 추가 수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MCP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보수 및 확장하는 측면에서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MCP 표준화를 촉매제로
AI S/W 기업 관심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

우리는 2025년 연간전망에서 AI 인프라 기업에서 AI usage 기업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옮기는 타이밍을 올해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Agentic AI 시대의 핵심 usage 기업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MCP 표준화를 촉매로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Rule of 40 제안**

AI 소프트웨어 종목을 보는 기준으로 'Rule of 40'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의 연간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했을 때 그 합이 40 이상이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강하다고 보는 경험적 기준이다. 2020년대 이후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의 투자자와 경영진이 이익과 성장의 균형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Rule of 40 점수가 높았음**

4월 시장 저점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반등 국면에서의 주가 반응이 하반기까지 길게 놓고 봤을 때 종목을 선정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이중에서 Rule of 40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최근 수익률도 우위였다.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팔란티어는 최근 실적발표에서도 자신들의 Rule of 40 점수 개선을 강조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 중 가장 가장 점수가 좋다. 팔란티어 이외에서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고려하더라도 이 기준을 고려해 종목을 선별해볼 수 있겠다.

표1 미국 주요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Rule of 40

기업명	티커	시가총액 (십억달러)	OPM (A, %)	매출 성장률 (B, %)	Rule of 40 (A+B, %p)	EPS 성장률 (% YoY)	1개월 수익률 (5/13 기준, %)
팔란티어	PLTR	302.3	44.0	39.3	83.3	110.0	44.7
앱러빈	APP	125.2	40.3	40.3	80.6	363.4	48.1
PTC	PTC	20.5	47.0	5.5	52.5	51.7	17.6
PAYCHEX*	PAYX	54.5	46.9	4.8	51.7	8.6	3.8
오라클*	ORCL	455.0	44.0	6.4	50.4	21.3	22.6
인튜이트	INTU	183.6	31.8	17.0	48.8	24.6	11.9
오토데스크	ADSK	63.5	37.0	11.6	48.6	22.2	14.9
데이터독	DDOG	40.5	22.0	24.6	46.6	266.7	27.5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RWD	109.6	21.0	25.2	46.2	적자전환	16.5
서비스나우	NOW	214.6	27.0	18.6	45.6	-18.4	32.0
팔로알토*	PANW	127.1	28.4	14.3	42.7	456.6	14.1
워크데이	WDAY	72.2	26.4	15.0	41.4	-62.5	19.2
몽고 DB	MDB	16.0	21.0	19.7	40.7	30.2	20.7
세일스포스	CRM	277.5	33.0	7.6	40.6	51.5	13.4
스노우플레이크	SNOW	60.4	9.0	27.4	36.4	-51.4	24.9
ADP*	ADP	125.1	25.8	5.7	31.5	10.8	2.9
ANSYS	ANSS	30.5	11.7	8.2	19.9	14.4	17.1

주: *표시된 기업은 하이브리드(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혼합) 기업. 나머지는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